

日帝下 韓國新聞의 共產主義

受容에 관한 研究(其一)*

劉 載 天**

I. 序 論

II. 勞動運動의 개념과 방법

1. 勞動運動의 概念
2. 勞動運動의 展開方向
3. 사회주의와 農業勞動

III. 마르크스思想과 사회주의

1. 마르크스思想의 소개
2. 社會主義의 개념
3. 사회주의와 민족운동

IV. 요약 및 토론

I. 序 論

1910년의 韓日合併 이후 日帝는 民族言論을 말살하고 憲兵警察制度를 도입하여 武斷政治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日帝는 武斷統治 대신 이른바 文化統治로 그들의 對韓植民政策을 전환한다. 그 까닭은 武斷統治가 결코 현명한 식민통치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결국 강압 대신 회유로 방향을 바꾼 것 뿐으로 그들의 對韓植民政策에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초래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日帝가 3.1 독립운동 이후 이와같이 정책변화를 하게 된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日本國內의 상황이 작용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즉, 그 하나는 日本內 정치적 상황의 변동을 들 수 있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 운동의 진전과 노동운동

* 이 研究는 1985年度 文敎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 西江大學校 新聞放送學科 敎授.

의 급속한 전개 등에 의해 대중의 반체제세력이 대두되고 있었다. 1919년 8월에 이른바 삼소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발발하여 경찰력과 군대에 의해 겨우 그 폭동을 진압한 후, 寺內 官僚內閣이 붕괴되기에 이른다. 그 뒤를 이어 후계 수상으로 취임한 政友會총재 原敬은 그때까지의 관료내각 대신에 政黨內閣을 조직하여 日本에 政黨政治의 단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山縣有朋·寺內的 武斷的 관료통치의 후퇴와 진보적인 西園寺公望에 연결된 平民 原敬에 의한 市民政黨政治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原敬은 少壯 官吏時代부터 식민통치에 대해 관심과 一家見을 가지고 있었으며,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政況에 유의하여 山縣과 寺內的의 武斷統治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3.1 독립운동이후 對韓植民政策의 변화는 이러한 原敬內閣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¹⁾

나머지 하나로는 3.1 독립운동 이후의 日本內 여론의 향배를 들 수 있겠다. 예컨대 「大版朝日新聞」은 1919년 7월 27일자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번의 朝鮮民衆蜂起는 日本의 對韓政策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다. 현대의 식민정책은 옛날과 달라 武斷으로서 시종될 것이 아니라 敎化를 主眼으로 한 文化政策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은 가장 졸렬한 수단이다. 이번의 朝鮮民衆蜂起는 가혹한 武斷政治에 대한 조선민중의 필연적인 항거다. 이러한 항거의 유발은 朝鮮에 대한 日本의 태도를 오해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이것을 계기로 日本의 지금까지의 대 한정책이 반성되고 至急히 시정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²⁾

이 밖에도 「東京朝日新聞」은 소란(3.1 운동)의 유력한 원인은 총독정치의 결함에 있다고 반성하면서 朝鮮에서의 言論抑壓은 세계에 比類가 없어 御用新聞 이외에는 발간을 不許하고 있는 실정을 폭로하였다. 또한 吉野

1) 金圭煥, 日帝의 對韓言論·宣傳政策, 서울: 二友出版社, 1978. pp. 159~161.

2) 「朝鮮日報五十年史」, 朝鮮日報社, 1970, p. 27.

作造는 「中央公論」(1919년 6월호)에 실린 『朝鮮에 있어서의 言論自由』라는 글에서 “朝鮮人の 言論自由를 일본과 같은 정도로 許한다는 것은 日・韓 兩民의 平等的 許與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해 6월에 黎明會 주최의 「朝鮮問題討論會」석상에서 朝鮮政治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 ① 민족차별의 철폐 ② 武人政治의 철폐 ③ 同化政策의 철폐 ④ 言論自由의 어느정도의 보장 등 4개 조건을 제언하기도 했다.³⁾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長谷川의 후임으로 齊藤 實이 1919년 9월 2일에 제 3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는 부임한 다음 날인 9월 3일에 총독부 및 소속관서에 대한 훈시에서 「時代의 進運과 民心의 歸嚮에 鑑하여 行政・司法事務 各般에 걸쳐 다음의 改善」을 할 것을 밝혔다. 이 때 언급된 4개항의 개선책 가운데 “言論・集會・出版 등에 대하여는 질서와 公安유지에 무방한 限 상당히 고려를 加하여 民意의 暢達을 期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⁴⁾ 이와같은 신임 총독의 훈시는 말할 것도 없이 3·1 독립운동후 일본정부가 세운 「朝鮮統治의 方針」에 근거한 文化統治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齊藤 實은 憲兵警察制度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도로 바꾸는 등 총독부의 관제를 재정비하나 이것은 모두 지난 武斷統治 때와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방법만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齊藤 實이 취임훈시를 통해 ‘...질서와 公安유지에 무방한 限’ 민간신문을 허가할 뜻이 있음을 밝힌 이후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1919년 10월부터 신문발행의 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 때 신문발행을 신청한 전수는 10여건에 달했으나 총독부 당국은 1920년 1월 6일자로 民族進영의 「東亞日報」와 친일계의 「朝鮮日報」 및 「時事新聞」등 3개지의 발행만을 허가했다. 당시 친일단체였던 大正實業親睦會가 발행허가를 얻어 창간된 「朝鮮日報」는 1924년에 이르러 民族陣營의 申錫雨등이

3) 「東亞日報社史」, 卷一, 東亞日報社, 1975, p. 66.

4) 같은 책, p. 67.

朱秉峻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해 9월 13일에 李商在가 사장에 취임함으로써 民族紙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民間新聞들이 창간된 뒤 이른바 文化給治기간 동안 총독부 당국의 言論統制는 어느정도 완화되었다. 이 때의 언론통제의 한계에 대한 총독부의 방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당시 언론단속의 직접 책임자였던 保安課長과 도서과장을 겸임하고 있던 田中武雄의 회고담에 언론취체의 기본방침이 밝혀져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⁵⁾

1. 機關紙, 植民地紙, 民族紙 어느 것을 막론하고 취체활동에 관해서는 전혀 구속하지 않았다. 다만 기사 인체의 경우에 데스크와 최고간부에 그 기사가 「統治의 大前提」의 취지에 위반되는 여부를 살피는 책임을課했다.

1. 어떠한 新聞에 대해서도 당국에 아부하는 기사를 쓰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 더우기 ‘단순히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압박하는 것은 되도록 피했다.

1. 취체당국의 태도에 대해 직접 다른 官吏, 혹은 一般民間人이 비판을 시도한 기사라도 내버려 두었다.

1. 諺文紙(民族紙)에 대해서는 독립, 전면적 자치, 무력투쟁 등 「大前提」에 배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맹퇴치, 교육확장, 농촌진흥 등의 實力向上運動은 容認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언론완화정책도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또 다시 언론에 대한 억압정책으로 전환된다. 그것은 日本國內에서의 大正民主主義의 후퇴, 파쇼체제의 대두, 대륙침략계획의 구체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1925년 4월에는 「治安維持法」이 제정되어 ‘國體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私有財産制度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하여 1931년의 만주사변과 37년의 中日戰爭의 발발을 계기로 「內鮮一體」와 朝鮮의 「大陸兵站基地化」 정책이 강행되면서 모든 言論은 국민총

5) 金圭煥, 앞의 책, pp. 211~212.

동원태세의 기수로 전락하고 만다.

이상과 같은 日帝의 言論政策 가운데서 주목할 사항은 海外刊行物의 韓半島內 반입을 철저히 봉쇄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日帝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언론통제관계 법률조항으로 구체화 되었다.

新聞紙法 改正에 관한 件(법률 제 8 호, 隆熙 2 年 4 月 20 日) 第 34 條, 出版法(法律 第 6 號, 隆熙 3 年 2 月 23 日) 第 12 條, 新聞紙法(法律 第 41 號, 明治 42 年 5 月 5 日) 第 24 條, 警察犯處罰規則(조선총독부령 제 40 호, 明治 45 年 3 月 25 日) 第 20 條, 不穩文書臨時取締法(法律 第 45 號, 昭和 11 年 6 月 13 日) 등이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共產主義나 社會主義의 新思想이 해외의 간행물을 통해 한국에 수용되기는 매우 어려웠다. 물론 1920년대 전후에 러시아어로 인쇄된 文書들, 예컨대 모스크바에서 간행되었던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Komsomolskaya Pravda), 「볼셰비키」(Bolshevik) 등과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행되었던 「크라스노예 즈나미」(Krasnoye znamya), 하바로브스크에서의 「티토케안스카야 즈비에즈다」(Tihookeanskaya zvezda) 등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 문서는 언어장애와 일본검열, 경찰의 제재로 말미암아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에 불과했다. 이런것에 비해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로 된 문서로 이르크츠크의 「赤旗」, 하바로브스크의 「先鋒」등이 시베리아와 중국의 여러지역에서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문서 역시 수입하기가 극히 곤란했다.⁶⁾ 따라서 밀수입된 文書들에 의한 외부의 영향은 단지 초기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대신 1920년대초에 등장했던 일간신문들은 모두 대중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전파하는 급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논할 수 있는 능력과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 있는 용기가 지식인이라는 명칭에는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으로 생각되었다. 그들이 얼마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해하고 이

6)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66.

를 전파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신사상에 호의적이었다. 그리하여 「東亞日報」와 「朝鮮日報」와 같은 일간신문과 「開闢」, 「朝鮮之光」, 「新天地」 등의 잡지가 한국에 공산주의 사상을 소개하는데 기여했다.⁷⁾ 이에 대해 코민테른은 6회대회(1928년 12월 10일) 직후에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낸 12월 테제에서 “당문제의 토의와 당의 품위에 불신을 초래할지도 모를 논쟁에서 자유주의적인 부르조아新聞을 이용하였다”고 한국공산주의자를 비난했으나 일본경찰의 검열 때문에 공산당의 출판물은 결코 발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공산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인 부르조아 잡지를 이용했던 것은 자급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잡지를 이용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대중에게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⁸⁾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한국내 수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民族陣營의 신문이나 잡지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本研究는 일차적으로 1920년에서 1935년 사이의 「東亞日報」紙面に 나타난 공산주의의 수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시기를 1935년(「東亞日報」의 폐간은 1940년 8월 10일)까지로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언론은 1936년부터 일제의 탄압에 의해 제2의 言論暗黒時代로 접어들었으므로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⁹⁾ 本研究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운동의 전개과정이나 실천과정—조직, 인물, 행동 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관련된 어떤 개념이나 관점들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에 수용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기사 가운데서 社說이나 論說이 된다. 이 당시의 新聞紙面構成은 현재와 달라 一面에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社說과 論說을 게재했다. 이들 社說이나 論說 가운데서 공산주의나 사회주

7) 앞의 책, p. 67.

8) 앞의 책, pp. 112~113.

9) 崔竣, 「韓國新聞史」, 서울: 一潮閣, 1979, pp. 322~323.

의 이념과 관련된 것들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들 理念을 비판한 社說이나 論說들은 분석에서 참고만 하기로 했다(분석대상 社說이나 論說은 뒤의 「分析對象論說」을 참고하기 바람).

II. 勞動運動의 개념과 방법

노동운동의 개념과 방법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된 전략과 전술을 표출하는 것이다. 「東亞日報」에 게재된 이 관계 論說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1. 勞動運動의 概念

勞動運動을 오로지 勞動時間, 勞動賃金 및 기타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제약조건을 개선하는 데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운동이란 자기 자신과 全人類의 解放을 위한 운동으로 불합리한 모든 조직을 근저로부터 타파하고 人性的 근본요구를 기초로 삼은 新經濟組織을 재건할 때까지 일체에 대하여 宣戰을 布告하고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때까지 응전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지식이나 학문에 상관없이 일체 無產階級者가 다 한 가지로 참여할 성질을 지닌 것이다. 지식계급자란 것도 경제적 지위를 보면 반드시 무산계급에 속한 것이니 무산계급과 자기 사이의 밀접한 이해관계를 자각하고 그들과 공통심리를 가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관점이다. 공장에서 자체적

10) 勞動運動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논의한 주요 論說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俞鎮熙, “勞動運動에 관하여”(東亞日報 1920. 4. 15~16). 俞鎮熙, “世界勞動運動의 方向”, (東亞日報 1920. 5. 5~8). 廉尙燮, “勞動運動의 傾向과 勞動의 眞義”(東亞日報, 1920. 4. 20~26). 鐵民生, “勞動運動과 倫理意識”(東亞日報, 1920. 5. 18~19). 雙眼中啞子, “朝鮮人の 勞動運動”(東亞日報, 1920. 7. 17). 卞熙銘, “農業勞動運動의 國際化”(東亞日報, 1921. 12. 19~26) 社說 “朝鮮의 勞動問題”(東亞日報, 1922. 7. 20). 社說, “無產者運動의 實際性”(東亞日報, 1925. 6. 2).

의 고용관계로 지배자계급에게 노력을 파는 사람들은 육체적이나 정신적
을 물론하고 다 같이 노동자계급에 포함된다고 본다. 말하자면 산업적 전
체주의를 타파하고 민주화한 산업조직 아래서 자유독립의 생산자로 사회
적 공헌을 하려는 윤리적 기초에 따른 노동운동은 합리적인 산업조직을
만드는 동시에 종래에 고정하였던 문명을 돌파하고 다시 양양한 신문명을
창조할 무한의 가능성을 胎有함을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가에게
예속된 상태를 벗어나 무산자계급의 사회를 만들려는 운동으로 단순히 경
제적 조직의 개혁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획득도 불가피한 성격을 지니
게 된다. 결국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본적 공업을 사회주의화 하
는 데 있다. 그것은 산업의 관리지배권을 국유화하고 그 관리권의 전부와
경영상 주요 권한은 노동자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다.

2. 勞動運動의 展開方向

노동운동의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세계의 노동운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즉, 영국에서 발생한 職工組合主義, 프랑스의 쌍디칼리즘 및 마르크
스와 라살의 정신과 이상이 포함된 독일의 社會民主組合, 아나키즘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에 지식계급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는 논리를 펴나.

한편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조선의 노동운동은 실리주의를 배격
해야 하고 노동운동을 공장주와 노동자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국제, 정치, 사회, 교육, 종
교 등 모든 것이 다 노동자에게 생활상의 고통을 조성함에 직접적으로 관
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일체를 개선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이다. 즉, 장래의 노동문제는 온갖 계급의 사람들
이 현재 생활의 잘못을 자각하고 인류를 열애하는 넓고 큰 양심으로서 현
재 상태를 개조하여 과거에 발생한 불합리한 악덕의 암흑으로부터 인류의
정신을 해방하고 사회연대의 정신으로서 신생활을 축조하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날 소지로서 네가지 바탕을 들고 있다. 첫째, 조선에는 兩班常漢, 官尊民卑 및 노동천시의 반동적 계급사상이 있고, 둘째 선진국 산업제도의 모방에 따라 자본이 집중하고 있으며, 셋째 빈곤, 넷째 小作人문제로서 歐美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은 대개 공장노동자에 한하지만 우리나라는 農本國인 고로 小作人이 대다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회적 사업과 시설로써 화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이는 官民協力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有識者는 우선 노동자의 질적 개선 즉, 교양에 着目하여 분려하는 동시에 同問題의 연구와 해결에 관하여 심분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문제와 사회운동을 정치문제와 정치운동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3. 사회주의와 農業勞動

코민테른 6회대회 직후의 12월 테제로 알려진 조선공산당이 직면한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 가운데는 한국산업의 원시적 단계로 인해 수많은 農民에 비하면 공업노동자의 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자극을 주어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한국의 혁명을 발전시키는 데 지장을 가져왔다는 내용이 있다. 공산주의자는 농민과 그들의 토지를 둘러싼 혁명투쟁을 무시함으로써 한국에서 민족부르조아지운동의 실패 원인과 똑 같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이 노동운동의 주요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논설로 우리는 1923년 8월 30일부터 약 10회에 걸쳐 연재된 “사회주의와 농업문제”라는 글을 본보기로 들 수 있다. 佐野學의 논문을 번역한 이 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 6章으로 서술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왜 농민문제가 사회주의의 중심문제가 되지 못했는가를 규명한다. 그 이유로 첫째, 사회혁명의 지도적 세력이 도시의 노동자계급이라고 보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농민제급보다 훨씬 제급의식이나 집단력 및 건설력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농공업의 유기적 관계가 철저히 이해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세째, 농민제급간에 제급의식이 예민치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구시대의 보수적 정신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네째, 자본주의 경제조직 아래서 도시노동자와 농민 사이의 이해의 상반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섯째, 농민제급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글은 농민문제와 사회주의와의 깊은 관계를 설파한다. 113자가 삭제 당했기 때문에 신문에 소개된 내용은 (1) 농민제급이 도시노동자와 같이 무산제급의 기본적 요소를 형성, 자본가의 착취를 당하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점, (2) 근대의 경제조직 아래서는 농공업의 反離가 심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조직은 양자간의 진정한 조화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되며, (3) 농민 제급이 왕왕히 반동적 노력에 이용당한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업은 土地의 共有化, 生産의 社會化, 經營의 社會化, 大農組織과 科學의 極度應用, 都市와 農村의 접근으로 그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주의농업에 도달하는 데는 여러 장애가 있다. 그러한 장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농촌의 복잡한 계급관계, 둘째 토지소유가 비교적 용이한 사실, 세째 농업의 형태가 다종다양하다는 사실, 네째 기계화의 진보가 느린 사실, 다섯째 보수적 정신이 상존한다는 사실 등이다.

Ⅲ. 마르크스思想和 사회주의

마르크스思想和 사회주의에 대한 소개는 주로 외국 저자들의 저서나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¹¹⁾ 이에 대한 批判도 물론 제기되었다. 이

11) 마르크스思想和 社會主義에 대한 論說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반나 아뢰르트(如是觀 譯) “佛國에 在한 社會主義의 三大潮流”(東亞日報 1920. 6. 22~30) 金佑平, “社會主義의 외역”(東亞日報, 1920. 8. 15~17) 吉野作造

러한 논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22년의 마르크스 勞動價値說을 둘러싼 상호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東亞日報」에 소개된 마르크스思想의 대강과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가운데서 주요한 부분만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마르크스思想의 소개

마르크스思想을 소개한 논설 가운데 비교적 체계있게 정리한 것은 河上肇의 글을 李順鐸이 번역하거나 抄譯한 “막스思想의 概要”와 “말크스의 唯物史觀”이라 할 수 있다. 이 글들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 두 논문의 소항목들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막스思想의 概要>(東亞日報 一面에 37회에 걸쳐 연재됨)

제 1 장 社會主義 經濟學의 成立

제 2 장 唯物史觀

제 1 절 序言, 제 2 절 社會進化論

제 3 절 階級투쟁설, 제 4 절 總괄

제 3 장 資本主義의 經濟組織의 批評

제 3 절 잉여가치설, 제 4 절 자본주의적 경제조직의 필연적 붕괴

제 4 장 社會民主主義

② <말크스의 唯物史觀>(東亞日報 一面에 18회에 걸쳐 연재됨)

제 1 편 共產黨宣言上에 나타난 唯物史觀

제 1 절 사회조직 진화론

계급투쟁의 개념으로 파악, 사회의 유물적 생산력이 어느정도 이상으로 발전하면 그에 따라 사회의 경제조직도 변한다. 이것이 마르크

(一記者譯), “社會主義의 三變遷”(東亞日報, 1921. 4. 13~14) 著者未詳, “二月革命과 新思想의 發達”(東亞日報, 1921. 11. 7~12. 22) 李順鐸譯, “말크스의 唯物史觀”(東亞日報, 1922. 4. 18~5. 8) 李順鐸譯, “막스思想의 概要”(東亞日報, 1922. 5. 11~6. 23) 著者未詳, “勞動價値說과 平均利潤率의 問題”(東亞日報, 1922. 7. 7~14) 辛泰嶽, “社會主義와 民族運動”(東亞日報, 1923. 7. 4~12) 辛泰嶽, “資本制度의 崩壞經路”(東亞日報, 1923. 11. 15~27).

스사회조직 진화론의 중심 사상이다.

제 2 절 정신생활의 물질적 설명

일단, 사회조직이 변하면 종교나 예술, 철학 등이 또한 이에 따라 변동하지 않을 수 없다.

제 2 편 資本論上의 唯物史觀

2. 社會主義의 개념

사회주의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이념으로 소개되고 있다.

(1) 물질적 생산기관의 共有 : 地代 및 利子를 개인이 향유함을 폐지한다. 사회라는 협동단체가 개인 혹은 개인적 단체에 대신하여 토지나 자본의 소유자가 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모든 이익이 다시 사회로 환원된다.

(2) 생산의 공공적 경영 : 이윤은 인민 전체의 소득이 된다.

(3) 공동적 권력자에 의한 수익의 배분 : 이것은 사회주의의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절대 기제적 평등, 상시용 일파가 주장하는 평등주의, 능력에 응하여 노동하고 필요에 응하여 보수를 취하자는 루이프린의 주장, 수입의 평등 등을 설명하고, 사회주의는 사회동포주의로서 세계에는 주인도 없을 것이요, 노예도 없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 밖에 사회주의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를 소개하는 글도 있고 共產黨宣言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밝힌 논설도 있다. 개량파 사회주의, 혁명적 쌍디칼리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사회주의 제보와 그것의 역사적 생성단계도 소개하였다. 한편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에 대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공통적으로 부르고 있다.

3. 사회주의와 민족운동

자본주의의 제제 붕괴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속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의 관계정립도 약소민족의 해방과 사회주의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사회주의와 민족운동”(辛泰巖)이라는 논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 운동은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민족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욕구를 포함한 프롤레타리아적 운동으로 변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독립의 요구가 아니라 자기 해방의 원리로 사회주의적 국제 사회의 건설 요구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은 자본주의가 통제력을 잃은 데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 동시에 자본주의의 붕괴와 필연의 관계를 가진다. 사회주의도 민족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고는 신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국내의 프롤레타리아해방만으로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기하기는 분명히 불가능하다. 국제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약소민족간의 프롤레타리아와 공동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며, 그 결과로 한 자본국가내의 혁명은 그나라 노동계급의 단결과 동시에 그 나라가 지배하는 약소민족 간의 혁명분자와 약속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주의의 민족운동이 제일 첫번째로 토대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적으로 형제’라는 전제에 있다. 사회주의는 민족이 문화적 단위됨은 인정하나 정치적 단위됨은 부인한다. 정치적으로는 地球에 하나의 ‘세계공화국’만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주의는 또한 民族同權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주의는 민족운동에 여러가지 전술을 제공한다. 예를들면 사회주의는 일체의 민족운동에 대해 충실히 원조하며, 약소민족의 모든 운동에 사회주의적 성격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약소민족 사이에 일체의 舊要素를 붕괴함에 전력한다. 또한 약소민족 사이에는 농민운동의 발흥과 발달에 크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이 있다. 그것은 농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민운동이 유일한 가능성을 지닌다. 약소민족은 “국가적 생활을 용허한다”는 강대국의 부르조아적 폐임에 빠져서는 안되며, 사회주의는 때때 부르조아적 국민주의와 싸울 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족운동은 대아세아주의 또는 범회교주의와 같은 운동과는 절대로 상냥치 못하며, 사

회주의적 민족운동은 필연적으로 반군국주의와 결속할 것이다.

Ⅳ. 요약 및 토론

이상과 같이 살펴본 「東亞日報」 지면에 나타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요약하고 몇가지 토론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1.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관련된 논설은 量的인 면에서 볼 때 1922년에서 1925년에 이르는 4년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1925년까지 많이 실리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관계 논설은 192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며, 1926년 이후에는 과격한 공산주의운동을 견제하는 사실과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나 예술에 관한 논설 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식민통치 당국이 1925년 4월에 제정한 그들의 治安維持法을 같은 해 5월 12일부터 한국내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데서 초래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에 따라 日帝에 의한 言論과 思想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 30년 이후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관련된 논설이 거의 자취를 감춘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일본이 대륙침략을 시작한 1937년 이후 모든 言論은 親日言論化 한다.

이런 가운데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 1929년부터 점차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산주의운동과 관련된 논설이 감소하는 대신 문학과 예술분야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문학과 예술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같은 경향은 30년대 이후의 한국공산주의운동이 낭만주의적 성격을 띤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 1920년대 전반에 공산주의에 관한 논설이 많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 1920년대초에 등장했던 民族紙는 모두 대중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전파하는 급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거나 아니면 민족진영에서 경영하는 신문의 경우 3·1운동 이후의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의 여

망에 부응하기 위해 민족주의와 현실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강한 진보사상을 표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진보주의자들과 그 당시의 知的 風土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3·1 운동 이후 민족개량주의 세력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통일전선구축도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3·1 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정책이 武斷統治에서 文化統治로 전환됨에 따라 언론들은 어느정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당시에도 「東亞日報」나 「朝鮮日報」 등에 대한 압수와 정간같은 탄압이 있었지만 日本의 국체와 관련된 사항이나 식민통치의 본질을 부인하지 않는 限, 사상과 관련된 언론의 자유는 그다지 심하게 억압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東亞日報」는 비록 紙面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소개하고 옹호하는 논설을 게재하기는 했으나 그에 못지 않게 자유주의나 혹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논설도 실었으며, 특히 社說은 거의 대부분 민족개량주의 내지 우파 민족주의의 노선을 따르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朴重華 등 민족주의자들이 주동이되었던 「朝鮮勞動共濟會」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협조를 해 주었다던지 혹은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지상논쟁에서 「東亞日報」는 민족개량주의의 노선을 고수했다. 특히 이러한 성격은 小作農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나 과격한 노동운동을 견제하는 논점의 전개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4. 1920 년이나 1921 년까지는 주로 노동운동에 관한 논설이 많이 실리고 1923 년부터는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자체를 소개하는 논설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지금과는 달리 이 때의 논설은 대부분 몇 일씩 연재되는 형식이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개는 5 내지 6 회의 연재에 그치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마스思想의 概要”가 37 회, “달크스의 唯物史觀”이 18 회까지 연재되었으며, 특히 “니콜라이 레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레닌의 전기가 61 회나 연재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덧붙인다면 레닌과 트로츠키 및 스탈린에 대한 이미지는 호의적인 것으로 彫像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레닌의 전기가 16회까지 연재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서거한 후에는 영웅으로 추켜 세워졌고, 그의 2주기 때에는 사실로 다루었으며, 막심 고르키가 쓴 「레닌」이라는 글까지 4회에 걸쳐 一面에 연재될 정도였다. 트로츠키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나 그의 귀환을 다룬 사실(1925.5.14)을 실고 “아! 이 어찌 근래 미유의 패사가 아니라. 우리들은 세계대중과 함께 氏의 귀환을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찬사와 감탄을 보냈다. 참고로 61회나 연재되었던 레닌의 전기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및 학생시대 (2) 러시아혁명의 유래 (3) 레닌의 장년시대 (4) 레닌의 소비에트운동 (5) 반동시대에 처한 레닌 (6) 레닌의 부활 (7) 만국사회주의의 부활과 레닌 (8) 레닌의 귀국 (9) 레닌의 실지운동 (10) 유명무실의 입헌정치 (11) 러시아혁명과 세계대전 (12) 3월혁명과 레닌 (13) 정치혁명으로 사회혁명에 (14) 레닌의 크렘린宮의 생활 (15) 레닌정부의 시설 (16) 레닌의 위인급 공명 (17) 폴색키의 천장 (18) 결론.

한편 마르크스이론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글도 실렸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논쟁의 하나는 “노동가치설과 평균이윤율의 문제”를 둘러싼 것으로 비판에 대한 비판과 또 거기에 대한 재비판이 행해지는 열띤 토론이 지상을 장식했다.

5. 이 당시 「東亞日報」에 실렸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관한 논설들 가운데는 일본의 학자나 논객들의 글을 번역하거나 초역한 것들이 많았다. 예전대 吉野作造, 河上肇, 山川均, 佐野學 등의 글들이 그러하며, 잡지로는 일본의 「改造」나 「解放」에 실린 글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소개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개념이나 이론은 日本의 학자들에 의해 정립된 것들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동경유학생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당시에 한국내에 반입될 수 있었던 文書(잡지,

신문, 저서 등)가 일본 것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노동운동을 소규모의 경제투쟁으로 파악하지 않고 광범위한 정치투쟁으로 이해한 관점 역시 일본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에 의하여 제창된 福本主義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일본의 좌익사상 및 1920년 대에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福本主義는 福本和夫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당시 일본 공산주의자들이 빠져있던 한정된 소규모의 경제투쟁 보다 오히려 광범한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기한 이론이다. 이를 두고 ‘방향 전환’의 사상이라고 한다.

6.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당시 신문에 게재 되었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개념이나 이론, 혹은 노동운동에 대한 개념과 그것의 전개방향에 대한 논설들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자각시키고 운동에 참여케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일제시대 특히 1920년대 우리나라의 문맹율은 약 80%를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우기 인구의 7내지 8할이 농민이었고, 농민의 대부분은 小作農이었다. 이들은 신문을 구독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농민이 대부분 문맹이고 경제적 여유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신문을 보았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업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은 주로 지식계층이나 부르조아층 또는 학생층이 보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신문에 실렸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개념이나 이론, 혹은 노동운동에 대한 개념과 전개방향 등은 직접 농민이나 노동자를 자각시키는 데 별반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향이 있었다면 지식계급을 통한 간접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와 동시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문에 의한 공산주의 이념의 전파는 한계가 비교적 뚜렷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分析對象論說

(東亞日報 1920~1935)

年 度	계재날자	筆 者	題 目
1920	4. 15~16	俞 鎮 熙	勞動運動에 關하여
	4. 17	社 說	朝鮮勞動共濟會에 對하여
	4. 20~26	廉 尙 燮	勞動運動의 傾向과 勞動의 眞義
	5. 5~8	俞 鎮 熙	世界勞動運動의 方向
	5. 12~14	社 說	過激派와 朝鮮
	5. 18~19	鐵 民 生	勞動運動과 倫理意識
	6. 22~30	如是觀(譯)	佛國에 在한 社會主義의 三大潮流
	7. 9	社 說	靑年會聯合에 對하여 各地同會更告하노라
	7. 12	趙 宇	鮮朝靑年聯合會 組織에 對하여
	7. 15	社 說	同友會에 對하여
	7. 17	雙眼中陞子	朝鮮人의 勞動運動
	8. 15~17	金 佑 杓	社會主義의 意義
1921	3. 3~31		正義와 自由와 財産
	4. 13~14	一記者(譯)	社會主義의 三變遷
	4. 28~30	柳 友 權	內的改造論의 檢討
	6. 3~8. 31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11. 7~12. 22		二月革命과 新思想의 發達
1922	12. 19~12. 26	卞 熙 塔	農業勞動運動의 國際化
	1. 28	社 說	社會主義의 運動에 對하여
	2. 25	"	共產黨의 今後政策
	2. 24~4. 5		社會主義와 個人主義
	4. 18~5. 8	李 順 鐸	「탈크쓰」의 唯物史觀
	5. 11~6. 23	" (抄譯)	「탁스」思想의 概要
	6. 12	金 俊 淵	勞動祭를 보고
	6. 20	社 說	民友會
	6. 23	"	獨立生活이 問題乎
	7. 3~7. 16	一 記 者	資本主義의 解剖
	7. 7~7. 14		勞動價値說과 平均利潤率의 問題
	7. 15	社 說	資本과 勞動
	7. 16~8. 8		탈스勞動價値說에 對한 批評의 批判

1922	7. 20	社	說	朝鮮의 勞動問題
	7. 31~8. 5	晚	悟	勞動運動의 社會的 欲求
	8. 9~8. 15			勞動價值說과 平均利潤率의 再論
	8. 15	社	說	有產階級과 無產階級
	9. 12	"		小作勞動者大會
	10. 3	"		朝鮮思想界의 將來
	10. 21	"		勞動聯盟의 成立
	11. 14	"		勞動政府의 五週年星霜
1923	1. 10	"		反合의 理則
	1. 20	"		革命的 氣分과 健實한 著目
	2. 14	"		赤化防止團의 滑稽
	3. 20	李	星	中產階級의 利己的 運動
	3. 31	社	說	物產獎勵運動에 對한 論爭
	4. 6~4. 17	朱	鍾	無產階級과 物產獎勵
	4. 13	社	說	思想界의 三大潮流
	4. 19	社	說	朝鮮人赤化思潮의 防止策
	4. 26~4. 29	羅	公	社會問題와 物產獎勵
	4. 27	社	說	姜宅鎭氏의 土地포기에 대하여
	4. 26	姜	宅	地主權을 포기하고
	4. 26	尹	嶺	自滅인가 圖生인가?
	5. 1	社	說	五月一日
	5. 3	"		全南地主의 대항운동
	5. 4	"		勞動示威日의 側面觀
	7. 4~7. 12	辛	泰	社會主義와 民族運動
	7. 9	社	說	資本主義의 毒焰
	7. 23	"		思想界의 不穩
	7. 23~8. 18	一	記	社會主義批判
	8. 30~9. 9	南	農	社會主義와 農業問題
	9. 10~9. 13	鮮	于	칼 막스의 傳記를 讀하고
	9. 16	社	說	社會運動에 對한 觀察
	9. 19~9. 25	洪	利	無產階級思想과 小農조아 思想
	9. 22~9. 26	鮮	于	小作人과 商工業勞動者地位와 境遇如何
	9. 26~9. 29	崔	昌	無產階級과 勞動運動
	11. 8~11. 14	南	農	社會主義와 農民問題
	11. 15~11. 27	辛	泰	資本制度의 崩壞經路
	12. 12	記	事	朝鮮共產黨 黨則
1924	1. 1	社	說	過去 1年間民族的 諸運動의 回憶과 批判

1924	1. 20	社 說	勞動大會와 同盟의 개척
	1. 24	記 事	訃音을 전하는 레닌氏의 一生
	1. 25	社 說	英國勞動黨內閣의 出現과 레닌氏의 死
	1. 27~1. 31	고 리 끼	레닌
	1. 28	社 說	「레프로그라드」에서 「레닌그라드」
	2. 29	〃	露國의 현실
	3. 11	〃	露國共產黨이 본 朝鮮
	4. 15	〃	勞農大會의 開催를 祝賀함
	4. 18	〃	勞農總同盟의 組織
	4. 19	〃	國際勞動運動의 沿革
	5. 1	〃	메이메ー
	5. 31	〃	全世界革命運動
	8. 4	〃	勞動運動에 대하여
	8. 9	〃	勞動運動과 有產者에 대한 心理
	8. 13	〃	民衆運動의 先驅
1925	9. 1	韓 慎 教	無產青年運動과 國際青年메ー
	10. 30	社 說	朝鮮의 政治運動
	11. 23~11. 24	〃	民族運動과 社會運動
	12. 7	〃	無知와 無產의 因果關係
	12. 26~12. 27	〃	政治運動에 대하여
	1. 1	赤 城 山 人	朝鮮社會運動概觀
	1. 3	山 川 均	無產階級運動의 方向
	1. 7	社 說	思想界混沌과 官憲의 態度
	2. 3	〃	無產者의 祖國問題
	2. 5	〃	朝鮮思想界의 趨勢
	2. 6	〃	勞動爭議와 團結
	3. 6~3. 8	〃	日本의 無產政黨
	3. 12	〃	다시 社會運動者에게
	3. 20~3. 23	〃	民衆運動者大會에 대하여
	4. 21	〃	民衆運動者大會禁止에 대하여
	4. 29	〃	四思想團體의 合同
	5. 1	〃	메ー메ー運動의 發展性
	5. 1~5. 5	一 民 生	붉은 5月의 紀念
	5. 6	社 說	警察政治와 思想團體
	5. 14	〃	트로츠키氏의 歸還
	6. 2	〃	無產者運動의 實際性
	6. 8	〃	現下의 社會運動

1925	6. 30	社 說	愛國의 憤激과 階級鬭爭
	8. 19	"	知識階級이여 街頭에 서라
	11. 17	"	歷史上 兩大事件
	11. 10	"	危險思想의 所在處
	12. 2	"	思想的 論陣과 運動上協力
1926	1. 1~1. 5	裴 成 龍	世界勞動運動의 現勢
	1. 1~1. 11	星 山 學 人	朝鮮社會運動概觀
	1. 9		스탈린
	1. 16		赤衛軍을 完成, 트로츠키
	1. 21	社 說	「레닌」二週忌에 際하여
	1. 21~1. 22		레닌評
	6. 20~7. 7	裴 成 龍	「階級意識理論의 駁文」을 읽고
	7. 16	社 說	朝鮮人民共和國建設運動
	10. 12	"	階級運動의 科學的 過程
	11. 1	"	勞農露亞의 戰爭
	11. 12	"	主義와 生活運動의 實際
	11. 18	"	主義者와 實際運動家
	11. 30	"	勞動者 百萬
	12. 18	"	社會運動의 形式과 內容
1927	1. 1~1. 3	乎 干 生	朝鮮社會運動概觀
	2. 15~3. 1	金 泳 植	轉換期에 直面한 朝鮮新興運動
	4. 4	社 說	共產黨事件
	4. 15~4. 27	韓 雪 野	無產文藝家의 立場에서
	5. 6~5. 8	廉 想 涉	昨今의 無產文學
	7. 23	社 說	激成되는 反動思想
	7. 28	"	共產黨과 國民黨
	8. 5~8. 6	鵬 國 譯	學生時代의 畧스書簡中 하나
	10. 2	社 說	辯護士와 共產黨事件
	11. 4~11. 5		소비트文學 十年
1928	1. 1~1. 3	三 角 山 人	朝鮮社會運動概觀
	7. 11	社 說	大學의 思想善導
	7. 17	"	思想團體集合禁止
1929	1. 1~1. 3	金 章 煥	過去十年間의 世界의 勞動運動
	1. 1~1. 3	金 東 進	勞農聯邦의 設立後 變遷
	2. 28	社 說	勞動組合法
	3. 21	金 基 錫	階級文學의 妥當性 問題
	5. 1	社 說	勞動祭를 臨하여

1929	6. 25	社 說	所謂 思想善導問題
	11. 19	金 潤 雨	民衆과 映畫
	12. 25~12. 29	咸 尙 勳	1929年の 世界大勢觀 —反動으로부터 進歩에—
1930	1. 1~1. 10	李 之 輝	朝鮮社會運動
	1. 7~1. 10	朴 完 植	프롤레타리아詩歌의 大衆化問題小考
	11. 1~11. 8	咸 大 勳	十月革命以後 소비에트文學의 傾向
1931	1. 1~1. 4	朴 英 熙	朝鮮프로레타리아藝術運動의 昨今
	5. 5	社 說	日本無產階級運動의 近狀
	5. 9	〃	資本社會兩國家의 共存
	6. 28	〃	左右의 激流
	12. 28	〃	勞動運動의 生長
1932	1. 25	〃	思想과 行動
	2. 20	〃	激増하는 思想犯
	5. 1	〃	메이데이